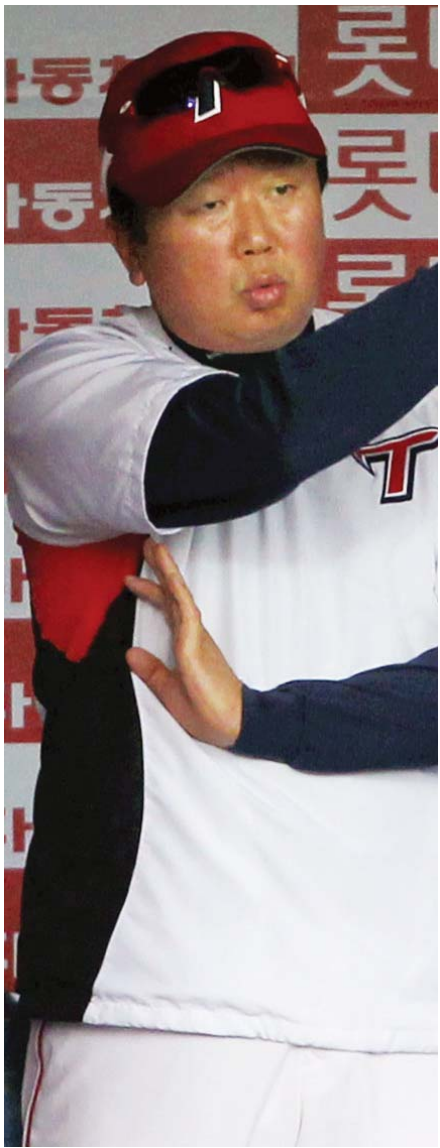




SUN “비가 싫어”

윤석민 두차례 등판 기회 날려
“호랑이는 쉬고 나면 몸 무거워”



1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와 롯데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비에 하루를 쉬어가게 된 KIA 덕아웃에는 두 가지 표정이 엮였다. 전력 투수 상황에서 경기를 쉬어간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 한편으로는 우천 취소로 인한 컨디션 난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에이스 윤석민이 이번 주 화·일요일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할 예정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KIA는 올스타브레이크에 앞서 19일까지 롯데·삼성·두산과 만나야 한다. 1~3위 팀과의 만만치 않은 승부다.

김상현의 공백 속에 타선의 중심 이범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한 부진으로 지난 9일 2군으로 내려갔고, 중심타자 역할을 수행

해야 하는 최희섭의 컨디션도 정상이 아니다.

또 박지훈과 최향남이 뒷문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좌완 필승조 심동섭과 마무리 한기주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빠르면 이번 주말 김상현의 복귀를 시작으로 부상선수들이 올스타브레이크를 전후해 재합류할 예정인 만큼 KIA 입장에서 전력에 완성된 후 경기를 치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컨디션 난조가 걱정이다.

우천취소에 앞서 그라운드를 내다보던 KIA 선동열 감독은 “오히려 경기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선수들이 쉬고난 뒤 몸이 무겁다”면서 쓴소리를 했다.

KIA는 올 시즌 화요일 전적이 3승8패에 불과하다. 월요일 휴식을 취하고 난 뒤 전적이 좋지 않자 선 감독은 “쉬는 것도 중요하

다. 잘 쉬어야 하는데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KIA는 우천으로 두 경기를 쉬어난 뒤 치른 지난 7일 넥센과의 목동 경기에서도 투타에서 컨디션 난조를 보이면서 2-9의 패를 기록했었다.

밸런스를 찾은 에이스 윤석민을 투입해 난적 롯데·삼성과의 정면 승부를 펼치려던 계획도 비에 무산됐다.

윤석민은 올 시즌 롯데와 삼성과의 3경기에 등판해 승없이 2패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3이닝 5실점의 부진한 피칭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하지만 이후 재활군에서 재정비를 끝낸 윤석민은 1군 복귀 후 두 경기에서 2연승을 달렸다. 문제가 됐던 밸런스와 스피드가 잡히면서 공의 위력이 살아난 만큼 롯데·삼성을 상대로 한 실책전이가 예상됐었다.

한편 10일 출격 예정이었던 윤석민은 하루 등판을 미뤄 11일 사도스키와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구단 창단 검토

KBO·프로야구 9개 구단 대표들

야구팬 강력 반발에 입장 급선회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프로 9개 구단 대표들과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10일 오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어 10구단 창단과 관련한 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KBO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달 임시 이사회에서 열악한 인프라, 프로야구 질적 하락 등을 이유로 10구단 논의를 무기한 유보하기로 했던 이사회는 전야구인은 물론 야구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불과 한 달 만에 10구단 창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급선회했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10구단 창단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진전된 제안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 측 인사와 만나 이 같은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전된 제안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양 총장은 “올스타전이 열리지 않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 된다는 데 구단 대표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난달 유보 결정보다 훨씬 긍정적인 내용이 도출됐음을 시사했다.

10구단 창단에 반대했던 삼성, 롯데, 한화 등 일부 구단은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별히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협회는 10구단 창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자 KBO 이사회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21일 열리는 올스타전을 거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김용우·김성근·김인식 감독 등 프로야구 전직 감독 14명은 9일 10구단 창단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각 구단을 압박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각 구단 대표들은 10구단 창단 유보에서 한발 물러나 창단 작업을 KBO에 위임하고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섰다. 선수협회가 이날 이사회의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9개 팀이 참가하는 내년 경기 일정을 팀당 128경기, 총 576경기로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홀수 구단으로 리그를 운영하면 경기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일부 구단이 경기수 확대를 주장했다. 각 구단 이동거리 증가와 월요일 경기로 인한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안대로 결정했다.

또한 신인 지명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고 지역 신인 우선지명 방식인 1차 지명 제도를 부활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 지명인원, 고교배분 등 세부 시행세칙은 실무자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나지완 “에이~ 이순철 코치님 방망이 별로네요”

최희섭 “선동열 감독님 구위 대단 ... 쳐보고 싶어”

한·일 레전드 매치 은밀한 준비 한창

“에이~ 기립 박수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요.”

KIA 나지완의 말 한마디에 10일 무등경기장 덕아웃이 웃음 바다가 됐다. 나지완에게 핀잔을 들은 인물은 다름 아닌 이순철 수석코치.

이 수석코치는 이날 선수들과 함께 배팅 훈련을 했다. 나지완의 방망이를 빌려든 이 수석코치는 배팅 머신 앞에 서서 공을 때려내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왕년의 매서운 스윙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을 쫓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 수석코치가 방망이를 든 이유는 오는 20일 잡실에서 개최되는 한일 레전드 매치 때문이다. 이 수석코치는 이번 레전드 매치에서 선동열 감독과 함께 외야수로 선발돼 일본 레전드와 대결을 갖는다.

하나의 이벤트라고 하지만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타석에 서야하는 만큼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 수석코치의 스윙이 끝나자 덕아웃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최희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에 나지완은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

는 아니다”며 이 수석코치의 타격을 평가했다. 제자의 냉정한 평가에 이 수석코치도 “앞으로 나지완 잘 지켜보겠다”고 응수하면서 사람들의 웃음보가 터졌다.

레전드 매치 한국 선발인 선동열 감독의 등판 준비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선 감독은 야수진의 특타가 진행됐던 9일 글러브를 끼고 피칭 훈련을 했다.

선 감독은 “110km나 겨우 나올 정도다. 곧 몇 개 던졌다고 어께가 수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최희섭이 “선수시절의 구위였다. 한번 쳐보고 싶었다”고 말할 정도로 위력적인 공을 던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레전드 매치 한국팀은 김인식



이순철 수석코치

사람탐을 중심으로 선동열·김시진·김용수·조계현·한용덕·송진우·정민철(이상 투수), 이만수·김동수(포수), 김성현·김기태·김광수·박정태·한대하·김한수·유지현·류종일(이상 내야수), 이순철·이종범·전준호·장원진·양준혁(이상 외야수)으로 꾸러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공과 스포츠카 누가 빠를까

15일 영암 F1경주장서

이색 속도 대결 펼친다

골프공과 스포츠카의 이색 속도 대결이 오는 15일 영암 F1경주장에서 펼쳐진다. 전남도는 10일 “이날 열리는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 제3라운드에서 프로선수가 친 골프공과 스포츠카 중 누가 빠를지를 겨룬다”고 밝혔다.

골프 드라이버를 잡는 선수는 지난해 KLPGA 다승왕과 삼승왕을 차지한 김하늘이며, 스포츠카는 지난해 KSF 제네시스스페드 챔피언십 시즌 챔피언인 최명길이 운전한다. 최 선수가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시속 170km 정도로 달리는 순간 같은 위치에

서 김 선수가 드라이버샷을 날려 200m 구간을 누가 먼저 통과하는지 보는 게임이다.

김 선수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260야드(237m)이며, 드라이버 스윙 시볼의 최고 속도는 시속 220km 이상으로 어지간한 스포츠카의 최고 시속을 넘어선다.

두 선수의 대결에는 승부 예측 이벤트가 걸려, 승리자를 맞춘 관중에게는 여수엑스포티켓 1장이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된다.

한편 이날 KSF 3라운드에는 체널A의 예능 프로그램인 ‘불멸의 국가대표’ 심권호(레슬링)·김동성(쇼트트랙) 선수 2명도 출전한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퓨처스 올스타전

14일 마산구장서

프로야구 퓨처스 올스타전이 14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올스타전은 롯데 윤학길 감독이 사령탑으로 내서는 남부리그(롯데, KIA, 삼성, 넥센, 한화, NC)와 경찰청 유승안 감독이 이끄는 북부리그(경찰, 상무, LG, SK, 두산)의 대결로 오후 6시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투수 임기준, 내야수 정상교·황정립, 외야수 유재혁이 올스타 무대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목포대 박찬영 선수

인라인롤러 국가대표 선발



목포대학교 박찬영(체육1) 선수가 인라인롤러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박 선수는 지난 4월 나주에서 열린 제31회 전국인라인롤러대회에 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는 등 3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박 선수는 아시안게임 등 각종 경기에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된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강운태 시장 올림픽 참가 광주 선수단 격려

강운태 광주시장이 10일 국가대표 훈련장인 태릉선수촌을 찾아 제30회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광주시 소속 국가대표 코치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양궁 기보배, 세단뛰기 김덕현, 펜싱 최은숙, 체조 김희훈, 양학선, 근대5종 황우진 선수가 출전한다.

〈광주시 제공〉

런던올림픽 출전 태극전사 245명 확정

2012 런던올림픽에 출전할 태극전사가 245명으로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제21차 이사회를 열고 런던올림픽 한국 선수단 파견 명단을 확정했다.

파견 규모는 22개 종목에서 374명으로 본부입원 36명, 경기입원 93명, 선수 245명이

다.

종목별로는 남녀 하키 32명, 사격 13명, 탁구 6명, 태권도 4명, 양궁 6명, 체조 7명, 남녀 핸드볼 28명, 역도 10명, 펜싱 14명, 조정 4명, 근대5종 3명, 배드민턴 12명, 레슬링 9명, 유도 14명, 축구 18명, 복싱 2명, 요트 4명, 트라이애슬론 1명, 사이클 10명, 여자배

구 12명, 육상 17명, 수영 19명이다.

런던올림픽 26개 종목 중 농구, 테니스, 승마, 카누에서는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선수 245명은 210명이 출전했던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후 최소 수준이다.

최근 올림픽과 비교하면 2004년 아테네

대회(23개 종목 267명), 2008년 베이징 대회(25개 종목 267명) 때보다 22명 줄었다.

이번 런던올림픽에 참가선수가 줄어든 것은 야구가 정식 종목에서 빠진 데다 구기종목의 부진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부터 4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했던 여자농구가 탈락한 것을 비롯해 남자농구, 남자배구, 여자축구 등도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한국 선수단은 11일 오후 2시 서울 망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결단식을 갖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세번째 산행 7월 19일(목) / 변산반도-능가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관 | Mtour

후원 | **광주일보사**